

물 위에 번진 시간, 백제를 걷다

금강을 따라 흐르는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그 위에 쌓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가 왔다.
 옥천문화원이 마련한 공주 · 부여 역사문화탐방은, 천오백 년 전 백제의 숨결을 따라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유의 여정이었다.
 우산을 쓰고 공산성에 오르자, 성벽 너머로 금강이 유장하게 흐르고 있었다. 성곽을 따라 걷는 발걸음마다, 이 길을 오갔을 백제 사람들의 숨결이 겹쳐졌다. 돌에 밴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현재를 붙들고 있었다.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자리였다. 고요히 이어진 능선 아래, 왕과 왕족들은 긴 잠에 들었지만 그들이 남긴 유물은 여전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 외부 세계와 교류하던 개방성은 백제가 지닌 문화적 깊이를 보여준다. 눈앞에 놓인 것은 과거의 흔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부여로 이어진 여정 속에서 만난 정림사지는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때 웅장했을 사찰은 사라지고, 오층 석탑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끝내 남아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간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내려앉는 순간마다, 사라진 것들의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다. 금동대향로를 비롯한 유물들은 단순한 전시품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과 미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섬세한 선과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절제된 화려함은 오늘의 시선으로 보아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아름다움은 시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사실이 그곳에 있었다.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궁남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했다. 연못 위로 번지는 물결과 그 위에 내려앉은 봄빛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를 흐리게 했다. 인공의 공간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백제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천천히 걷는 동안, 마음 또한 잔잔히 가라앉았다.
 이번 탐방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하나의 감각으로 남았다. 사라진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백제의 길을 따라 걸으며 과거를 만났고, 그 속에서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김대훈 원장이 백제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지용의 시가 그러하듯, 그리움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백제의 시간 또한 지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날의 여정이 남긴 조용한 울림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며, 다시 삶의 길 위에서 잔잔히 빛날 것이다.

편집위원/김보순



정림사지 오층석탑

충민사에 깃든 충절, 김순구 선생과 25인을 기린다.

충북 옥천에 위치한 충민사는 3·1운동 당시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김순구 선생과 동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열들의 희생과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4월 24일에는 김순구 선생을 비롯한 25인의 애국지사를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지역 유림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추모제에는 제례를 주관하는 주요 제관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초헌관 : 옥천부군수 이현창

아헌관 : 충북남부보훈지청 지청장 안진형

종헌관 : (재)순국선열 김순구선생 외 25인 기념재단 이사장 김학형

축 관 : 옥천문화원장 김대훈

이처럼 지역 행정과 보훈,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하는 이번 추모제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기억을 이어가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충민사는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추모제를 통해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돌아보고, 그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 속에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충민사사진(군서면)

청년문화봉사단 운영...지역문화 활력 기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봉사단'이 운영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문화봉사단은 청년들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문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26년 1월 1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봉사단은 앞으로 축제와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 각종 문화 현장에서 운영 지원과 관람객 안내 등을 맡으며, 기획·운영·홍보·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기획 활동을 통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뉴스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 운영, 주요 행사 기록 및 아카이빙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청년문화봉사단 운영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문화봉사단

향토사연구회가 오는 22일 문화교실에서 월례회를 개최

이번 월례회는 지역 향토사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 내용을 나누고, 향토사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건하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연구회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정리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월례회는 회원 간 교류를 강화하고 향토사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토사연구회 월례회

지용제 준비 박차... 39회 지용제 주관단체장회의 및 교통대책회의 개최

옥천문화원은 39회 지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월 21일 오전 11시 문화교실에서 교통대책회의를, 오후 2시에는 주관단체장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교통대책회의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주차 공간 확보, 교통 흐름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조됐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주관단체장회의에서는 지용제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단체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운영 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대훈 옥천문화원장은 “지용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9회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39회 지용제 주관단체장회의



39회 지용제 교통대책회의

제39회 지용제, 5월 14~17일 개최... 문학·공연·체험 어우러진 축제

제39회 지용제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구읍 상계공원 일원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이번 지용제는 문학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학생그림그리기대회(지용문학공원)를 시작으로 제1회 짹짹 동요축제, 충북도립교향악단 공연, 시골복적 콘서트가 주무대에서 이어지며 축제의 막을 올린다.

둘째 날에는 제36회 옥천시조창 경연대회 및 시상식과 제16회 옥천동요제, 지역예술인 공연, 평화통일기원음악회, 시니어모델 패션쇼, 제25회 옥천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셋째 날에는 쯤바페스티벌을 비롯해 주빌리중창단과 엘앙상블 공연, 제9회 정지용국제문학심포지엄이 열리며, 제32회 지용신인 문학상과 정지용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어 시노래 콘서트와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제25회 전국정지용백일장과 ‘풍금’ 정지용 이야기 프로그램, 향수창작가요제, 전국시낭송대회가 이어지며, 가수 박상철이 시인으로 참여하는 BOOK 콘서트와 군민한마음노래자랑 & 향수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상설 전시와 스탬프 투어, 희망 종이배 띄우기, 시 낭송 체험, 릴레이 시쓰기, 느린우체통, 추억의 문방구와 향수다방, 지용주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낙화놀이와 플라이보드 공연, 어린이 놀이동산 등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이번 지용제는 문학과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차



인력거



낙화놀이



종이배띄우기



플라이보드

청년연합이 오는 4월 23일 문화원 문화교실에서 4월 월례회를 개최

이번 월례회는 회원 간 교류를 강화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청년연합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행사 참여 및 문화 활동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이호걸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연합은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열리는 제39회 지용제에서는 '희망 종이배 띄우기'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월례회는 청년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문화 행사 참여를 통해 역할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연합 월례회

재미시인협회 이현숙 이사, 옥천 찾아 문학 교류 물꼬 튼다

재미시인협회 이현숙 이사가 지난 4월 11일 충북 옥천을 방문해 김대훈 옥천문화원장과 만나 문학 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열리는 미주 LA지용제와 39회 지용제에서 진행될 '미주 정지용 한인문학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현숙 이사는 직접 옥천을 찾아 행사 준비 상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두 사람은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문학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주 한인 문인들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를 통해 지용제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 속의 문학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김대훈 문화원장은 "멀리 미주에서 직접 찾아와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용제가 더욱 풍성한 국제 문학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과 해외를 잇는 문학적 가교로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이어질 미주지용제와 제39회 지용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재미시인협회 이현숙이사(왼쪽두번째)부와 김대훈문화원장

"옥천문화원, 4월 16일 안성시 방문... 교류로 이어진 사람과 문화의 순간들"

안성시 시 축제 담당자가 최근 옥천문화원을 방문해 김대훈 문화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대표 문학축재인 지용제의 운영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안성시 관계자는 지용제의 기획 과정과 프로그램 구성, 지역 주민 참여 방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문학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지역 문화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김대훈 문화원장은 지용제가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과정과 함께, 주민 참여와 문화예술 콘텐츠의 결합이 축제의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제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 방문객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용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배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성시 축제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자체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더하는 자리로, 앞으로도 지역 축제의 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회 정지용캘리그래피 공모전 심사완료 ...5월 16일 시상식 개최

옥천문화원은 지난 4월 18일(토) 오전 10시, 문화교실에서 「5회 정지용 캘리그래피 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현대시문학을 대표하는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캘리그래피로 재해석하여 문학적 감성과 예술적 표현을 접목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심사는 작품의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정지용 시의 정서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우수 작품들이 다수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5월 16일(토) 오후 16시, 39회 지용제 주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그래피 심사

지용제를 일궈낸 한 문화인의 집념과 옥천의 기억

- 39회 지용제를 맞으며, 박효근 전 옥천문화원장의 회상을 그린다

유년의 상처, 지워지지 않는 기억

1942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서당골.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부 박영순과 모 이동완 사이에서 2남 중 차남으로 자란 그는 유년 시절부터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오늘날 그는 부인 권금자 여사와 세 딸을 둔 가장이지만, 그의 삶의 출발점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남아 있다. 6·25전쟁 당시, 아버지는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지주였고 반공 성향을 지녔던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을 넘어, 한 아이의 세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어린 그의 기억에 깊이 박힌 것은 울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는 “효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정서적 결핍이었고,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과 외로움의 근원이 되었다.



지용시비 앞에서 지나간 일을 회상하며

결핍을 넘어선 성장과 도전

그러나 그는 그 결핍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듯, 자신의 삶을 씩 없이 밀어붙였다. 학창 시절 그는 공부와 운동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옥천중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육상, 중학교에서는 농구선수로 활약했다. 대전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보디빌딩에 몰두하여 ‘미스터 대고’에 오르기도 했다. 몸을 단련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를 견디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지만, 운동에 쏟은 시간과 열정은 결국 다른 길로 그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출발이었다.

문화원장 취임과 문화 기반의 구축

1987년, 그는 옥천문화원장직을 맡는다. 당시 문화원은 청년회의소(JC)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역 문화의 방향을 보다 공공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문화원장에 취임했고, 이후 2001년까지 14년간 재임하며 옥천 문화의 토대를 다지는 데 헌신했다.

지용제의 시작, 결단과 실행

그의 문화 행정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단연 ‘지용제’였다. 오늘날 전국적인 문학제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해금 이후에도 이념적 거리감이 존재했고,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었다. 기관장들의 참여는 없었고, 행사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식하게 밀고 나갔어. 무식한 놈이 일내는 거잖아.”라는 그의 말은, 오히려 그의 추진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 계산보다 확신이 앞섰고, 조건보다 의지가 강했다. 그 단순하고도 강한 태도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다. 1988년 5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용제에 참석한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시낭송(윤정희)의 울림과 시조창(박윤초)의 여운은 그를 깊이 사로잡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문학제를 옥천에서 해야 한다.” 이는 생각이 아닌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곧 실행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6월 25일, 옥천에서 1회 지용제가 열렸다.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김수남, 김성우, 정구관 등과 뜻을 나누며 준비를 이어갔고, 결국 지용제는 옥천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회 지용제를 관성회관에서 치른 뒤, 지용회 회원들과 문화원 관계자들이 월전리 물가에서 나눈 뒷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용제의 성장과 전국적 확산

이후 지용제는 점차 그 규모와 의미를 확장해 나갔다. 시인들과 문인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문학적 깊이가 더해졌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졌다. 시인 박두진이 건넨 “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살맛 난다”는 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지용제를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최고문학제’로 키우겠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연변 지용제, 문학의 경계를 넘다

그의 시선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1997년, 연변 문인 최룡관의 제안으로 ‘연변 지용제’를 개최하며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3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정지용의 대표작 「향수」가 연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문학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특히 가수 이동원이 연변 방송국에서 「향수」를 부른 이후, 이 노래가 지속적으로 방송되며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한 편의 시가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다시 지역과 민족의 감성을 잇는 매개가 된 것이다.

정지용 기념사업과 문화 자산의 복원

정지용 관련 사업 역시 그의 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지용 생가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 운동에 나섰다. 군 보조금뿐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인석 전 문화원장과 함께 도자기 컵과 시 액자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생가는 다시 복원되었고, 이는 지역 문화 자산을 지켜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이어 1989년에는 「향수」 시비를, 1990년에는 동상을 세우며 문학적 기념 공간을 완성했다. 특히 시비의 돌을 직접 구해온 일화는 지금도 지역에서 회자된다. 문화는 누군가의 손과 발, 그리고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학과 지역, 그 만남의 의미

그는 지용제를 통해 문학과 지역사회가 만나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내다보았다. 문화는 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공간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옥천은 문화으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고, 지용제는 그 중심에서 서 있다.

회고와 현재, 그리고 남은 길

돌아보면 그의 삶은 결핍에서 출발해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시작된 내면의 공허는 결국 지역과 문학을 향한 헌신으로 채워졌다. 개인의 상처가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된 것이다. 현재 그는 ‘최고령 시니어 모델’이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이를 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 지역이 문학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기록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아버지를 잃고 울던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소년이자 있다.

45년 생닭집을 지켜온 한 사람의 시간

옥천읍 금구리 한 모퉁이에는 얼핏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은 작은 닭집이 있다. 화려한 간판도, 최신식 인테리어도 없지만 이곳에는 4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 쫘악이 쌓여 있다. 이 가게 주인 임재근(75)씨는 하루에 한명 올까말까 하지만 항상 아침 8시만 되면 문을 열어 놓는다.

임씨가 이 가게 문을 연 것은 1982년이다. 당시만 해도 집집마다 잔칫날이나 명절, 복날이 되면 생닭을 사다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어서 명절이나 복날이 있는 달이면 몇백마리씩 팔리는 것은 예사일이었다. “예전 명절, 여름이나 복날만 되면 하루에 몇십마리씩 팔리고 했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금의 한산한 가게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풍경이다.

이렇게면 내가 장사하고 말지

임씨가 처음부터 생닭집을 시작한건 아니고 원래는 양계장을 운영하며 닭을 키웠다. 하지만 중간상인들이 싸게 가져가려고 하도 야단하기에 “사료값도 안남는데 이렇게면 내가 장사하고 말지.”하는 심정으로 현재 닭집 옆에 있는 편의점 자리에 크게 가게를 내었다. 당시에는 제법 큰 규모로 직접 키운 닭을 손질해 팔며 품질만큼은 어느 가게보다 자신있었다.

프랜차이즈 이전, 옥천의 치킨을 만들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없을 당시 가게에 튀김기를 들여놓고 반죽에 버무리 튀겨내면 후라이드 통닭, 양념을 버무리면 양념통닭이라고 만들어 팔았는데 “80년대 후반이었지 아마. 치킨이름이 어땠어. 그냥은박지에 싸고 봉지에 담아 줬지. 단골이면 썸무 2봉지씩 주고.” 프랜차이즈 치킨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더라고 하시는 임씨이다.

변한 환경에 적응하다.

세월이 흐르며 장사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옥천만 하더라도 대전 시내의 대형마트에 준하는 마트가 대여섯 개씩 입점해 있고 게다가 생닭, 정육부터 수산물에 이르기 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다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생닭을 사러 일부러 생닭집에 잘 들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임씨는 몇 년 전에 원래의 가게 자리에 편의점 세를 주고 닭집은 건물 모퉁이 작은 점포로 이사를 왔다. “요즘은 생닭 사러 하루에 한명도 올까 말까야. 누가 사겠어. 마트가면 썸썸한거 쉽게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지금은 생닭을 사러 오는 손님은 거의 없지만 계란을 사러 오는 손님은 그래도 가끔 있다고 하신다.

그래도 이런 노포 하나는 있어도 되지 않겠나

임씨는 “나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 많이 팔리지 않아도, 손님이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가끔은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시장에서 갓 튀겨서 내는 통닭이 그리울 때가 있듯이 세련되고 깔끔한 대형마트보다 가끔은 이런 노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찾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이 작은 생닭집은 그런 기억을 추억하는 공간인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임씨의 생닭집은 45년간 이 자리에서 망부석 마냥 지켜 왔다. 손님이 많고 적음으로 이 가게가 잘되니 못되니 하는 기준이 아닌 그 무언가를 간직한 것이 이 가게에 남아 있다.



신기닭집전경

편집위원/정희원

옥천을 살다 평생을 이곳에서 지켜온 사람

처음 이 주제를 접하고 글을 쓴다고 생각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평소 글을 많이 읽거나 쓰지도 않을뿐더러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한 편이라서 가슴 한편에 무엇인가 훅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직시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며 지인들의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모색 끝에 주제에 부합하는 옥천의 숨은 사람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주인공을 말하기 전에 이 주제에 부합하는 한 단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토박이”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681-1번지에 있는 토박이 식당을 운영하며 옥천 전통 음식 중 매운탕 맛을 이어가는 김석환(남), 윤종숙(여)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석환님은 1952년 가을,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시골 마을에서 5남 4녀 중 8번째로 태어나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학교를 졸업 후에 아버지와 함께 6년 정도 일하며 자전거 수리와 대문을 제작하는 기술을 배워,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위치한 갑산자전거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같은 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안내면 월외리에 거주하는 현재의 아내인 윤종숙님을 만나 1989년 3월 초봄에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현재는 모두 결혼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김석환님은 자전거 수리와 대문제작 등을 하고, 윤종숙님은 가정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1993년 4월경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박이 식당”자리인 동이면 적하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매입한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아내가 음식솜씨가 좋고 강에 인접하여 쏘가리, 메기, 동자개 등 민물고기도 많이 잡혔던 것과 더불어 주변 지인들의 권유도 있던 차에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윤종숙님은 처음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남편인 김석환님에게 “우리가 옥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서 옥천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뜻에 걸맞게 ”토박이“라는 상호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정감 가고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토박

이“로 상호를 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30년 넘게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식당 메뉴는 쏘가리, 메기, 빠가사리(동자개) 매운탕과 마주 조림을 조리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운영하는 토박이 식당은 음식솜씨가 남달라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동자개 매운탕으로 대상을 받았으며, 충청북도과 청주MBC에서 주관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는 금상을 수상받는 등 수많은 수상경력과 충청북도는 맛과 위생상태, 친절도 등에서 토박이 식당이 다른 후보들보다 뛰어나 모범업소에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석환님의 말에 의하면 요즘 옥천 주민은 토박이 식당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옛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특유의 전통적인 매운탕 맛으로 인하여 대전, 대구, 청주 등 외지에서도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토박이 식당은 다른 음식점과는 다르게 사계절 내내 살아 있는 싱싱한 민물고기와 능이버섯, 인삼 등 특제 양념을 가미하고 직접 반죽하여 숙성한 수제비를 넣어 비린내를 잡아주어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매운탕 본연의 얼큰함 속에 개운함과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후식으로 견과류를 넣어 만든 옛날 송늬를 선보여 뇌리에 깊이 미각의 맛 여운을 남기게 함으로써 손님들을 다시금 찾게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을 남기는 점은 현재 매운탕 전통의 손맛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김석환님과 윤종숙님은 옥천에서 태어나 자란 자식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토박이 식당의 매운탕 맛을 전수받아 대대손손

매운탕 맛의 전통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 ”토박이“ 본연의 의미를 이어받아 옥천에 살면서 옥천 고유의 맛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생겨 향토 음식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편집위원/김역수



토박이식당전경

가야금반

요즘은 세계화로 외래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악은 우리 민족의 삶과 감정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지난해 영동에서 열린 ‘세계 국악 엑스포’를 계기로 옥천과 보은에서도 가야금 동호회가 만들어졌고, 오는 8월 공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K-팝 등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진정한 한국의 매력은 국악과 같은 전통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옥천문화원에 가야금 강좌도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지역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반

따뜻한 선율로 마음을 잇는 공간, 클래식기타 동아리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음악만큼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클래식기타는 부드럽고 깊이 있는 음색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악기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매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 클래식기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2010년 ‘옥천클래식기타합주단’으로 시작해 공연과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오크라(OKCLA)’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문화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래식뿐 아니라 영화음악과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곡을 함께 연주하며 합주의 즐거움과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이며, 기타가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음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토탈캘리그래피반

현대 캘리그래피는 단순한 글씨를 넘어, 시각예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종합 예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은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문인화와 전각을 함께 배우며, 문자 조형의 원리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토탈 캘리그래피’를 지향합니다.

수업은 서예의 기초 필법과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획·여백·균형 등을 활용한 조형 표현을 익히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고전 문장과 텍스트를 활용해 글씨에 담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힘을 기릅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은 문자에 대한 표현력과 조형 감각을 키우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나아가 글씨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예술로 확장하고 싶은 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표현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국화반 - 문화원 한국화·서예교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는 걷기, 등산, 운동 등을 통해 몸의 건강을 지키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잡념을 줄여 주어,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취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소와 함께할 사람, 그리고 지도해 줄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문화원 문화교실입니다.

저는 한국화와 서예를 선택해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완성된 순간에는 큰 성취감과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문화원에서는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최우수·우수축제



39회 지용제

詩
공복적
문학기행축제

2026.5.14(목)~5.17(일)

상계체육공원, 지용문학공원 및 구읍 일원



주최 | 옥천군 옥천문화원

주관 | 옥천문화원 지용회 정지용기념사업회 옥천청년연합회
옥주문화동호회 옥천청년회의소 각 문화예술단체

후원 | 충청북도

스탬프 투어

- 엽서 쓰기 | 우체국 안내 부스
 - 릴레이 詩쓰기 | 상계체육시설 내 족구장
 - 희망종이배 띄우기 | 친수테마공원
 - 시낭송체험 | 교동호수 다리
 - 운영 시간 | 10시 ~ 18시
- ※ 기념품 교환 | 만남의 광장 앞 우체국 부스

낙화놀이 시연

- 일 시 | 5. 15(금) 20시
- 장 소 | 교동호수

플라이보드 공연

- 일 시 | 5. 15(금) ~ 17(일)
- 공연시간 | 10시 30분, 11시 30분, 14시 30분, 16시, 17시 30분 (일요일은 오전만)
- 장 소 | 교동호수

詩와 산책 (옥천 9경 중 장계관광지)

- 일 시 | 5. 15(금) ~ 17(일) - 3일간
- 행사장 출발 (꿈앤돈 식당 앞 - 시와산책 안내소) 13시, 15시(매시간 정각 출발)
- 사전신청 | 지용제 홈페이지 → "詩와 산책" 신청접수
- 현장신청 | 사전예약 신청자 우선 배정
- 현장 신청 접수처 | 꿈앤돈 식당 앞 (시와 산책 안내소)

숏츠공모전

- 지원자격 | 누구나
※ 1인(1팀)당 다수 작품 제출 가능(중복 수상 불가)
※ 공모작 작성 및 발표는 한국어만 가능
- 공모접수 | 5. 14(목) ~ 24(일) 24:00까지
- 제출방법 | 영상제작물을 개인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지용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지용제 홈페이지→커뮤니티/열린마당→신청서 접수
→지용제 숏츠공모전 게시판
등록 마감일 24:00까지 유효
- 공모주제 | 지용제 행사장에서 즐기고, 체험한 영상을 자유롭게 담아 1분 이내의 숏츠영상으로 표현
- 공모분야 | 다양한 장르의 독창성 있는 순수 창작물

월간 옥천문화

발행인 | 김대훈 원장
 편집·집필위원 | 김모순 위원장, 천기석 위원, 김역수 위원, 정희원 위원
 간사 | 옥천문화원 이성욱 과장
 창간일 | 2026년 3월 25일
 발행처 | 옥천문화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5
 대표전화 043)733-5588 팩스 043)733-8004